

“한여름밤 여수서 특별한 추억 만들어요”

LOCAL

2025년 8월 14일 목요일

16일 장도·웅천친수공원 일대 ‘밤밤페스타 여수’ 개최 정기명 시장 “관광객 만족...야간관광 특화도시 우뚝”

여수시가 한여름 무더위를 날리고 야간 관광의 전수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마련했다.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오는 16일 장도 잔디광장과 웅천친수공원 일대에서 ‘2025 대한민국 밤밤페스타 여수’를 개최한다.

‘대한민국 밤밤페스타’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지자체가 공동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야간관광 축제로, 전국 10개 야간관광 특화도시가 이어가기(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특별한 야간 체험을 제공해 지역 체류 기간을 늘



야간관광 특화도시 10개 지자체 디지털·관광 홍보 버스 △야간관광 플리마켓 △

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밤에도 빛나는 도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웅천친수

공원에서 △

동백 무비 나이트 △여수밤바다 맥주 무료 시음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예술의 섬 장도 잔디광장 야외공연장에서는 여수시의 대표 야간관광 프로그램인 ‘캔들라이트’ 공연이 열리며, 세계 3대 팝페라 테너로 꼽히는 임형주의 특별 무대도 준비돼 있다.

공연은 900명 한정 선착순 입장으로 진행된다. 별도의 좌석 없이 돗자리 등을 지참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관광

과 (061-659-3868)로 문의하면 된다.

정기명 시장은 “여수가 낯선만 아니라 밤에도 매력적인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페스타가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한여름밤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야간관광 특화도시에는 여수를 비롯해 인천, 통영, 대전, 부산, 강릉, 전주, 진주, 광주, 성주 등 10개 도시가 포함돼 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고흥, 녹동항에 주차타워 조성 생활거점 조성 지역 활력 도모

고흥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지역수요 맞춤형사업 공모에 ‘도양애 Parking & 休 주차타워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생활거점 조성을 통해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 12개소가 선정됐으며, 사업당 국비 최대 25억원이 지원된다.

고흥군이 선정된 ‘도양애 Parking & 休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국비 25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50억원이 투입된다. 도양읍 녹동항 일원에 주차타워(3층 4단, 166면)와 휴게공간(1277㎡ 규모)을 조성한다.

녹동항은 드론쇼와 바다 불꽃 축제가 열리는 지역으로 연간 수십만명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지만,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 불편을 겪어 왔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양읍에(愛) 정착(Parking) 기반을 마련하고, ‘2030년 고흥 인구 10만 달성’이라는 비전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나주, 문화유산·전설 현대 무용극 재창조

내일까지 문화예술회관 ‘K-풍류 나주의 전설’ 공연

나주시가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과 전설을 현대 무용극으로 재창조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선보인다.

13일 나주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5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된 동신대학교 비상무용단이 창작공연 ‘K-풍류 나주의 전설 : 청명(淸明)’을 14~15일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3회 공연한다.

이번 작품은 나주 고유의 삼색유산 놀이와 삼국시대 ‘아랑사와 아비사’의 슬픈 사랑 이야기가 담긴 양암바위 전설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무용극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은 무용, 연극, 음악, 전통 4개 장르 지역 전문예술단체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공연 예술 생태계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전국 65개 지자

체 122개 단체 중 32곳이 최종 선정됐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국비 1억50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억5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예술단체의 창작 역량 강화와 공연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비상무용단은 2007년 창단한 단체로 동신대학교 공연예술무용학과 박종임 교수가 이끌고 있으며 제16회 광주무용제 우수상(2007년), 제18회 광주무용제 대상 및 전국무용제 금상(2009년), 제28회 광주무용제 대상(2019년), 제28회 전국무용제 대통령상과 최우수연기상 그리고 무대예술상(2019년)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시는 이번 작품을 통해 나주의 역사와 예술이 어우러진 품격 있는 문화콘텐츠를 창출하고 지역 예술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갈 계획이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



함평군, 건강드림 행복버스 확대 운영 함평군은 최근 수해로 고통받는 이재민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위축된 지역 분위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건강드림 행복버스’를 확대 운영한다. 건강드림 행복버스는 의료 전문가가 주 4회에 걸쳐 의료 취약 지역을 방문해 기초 건강검진, 양·한방 진료, 물리치료, 발 마사지, 보건교육 등을 제공하는 이동식 건강 프로그램이다. 사진제공=함평군

순천, 산단 근로자 폭염재난 예방 강화

폭염 대응 행동요령 홍보 현장 안전관리 실태 확인

순천시는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산업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13일 순천시에 따르면 산업단지 폭염 재난 예방을 지난 8일 울촌산단을 시작으로 해동일반산단, 순천일반산단, 주암농공단지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첫 캠페인에는 순천시, 산단협의회, 입주기업 대표 등 30여명이 참여해 출근길 및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 대응 5대 수칙(물·그늘·휴식·보냉·응급조치) 준수와 충분한 수분 섭취, 2시간 작업 시 20분 휴식 등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했다.

특히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작업장 내



순천시는 최근 울촌산단사거리에서 순천시, 산단협의회, 입주기업 관계자 등이 산업단지 폭염재난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무더위 쉼터 운영 실태 점검과 함께 작업 시간 조정 여부 등 현장 안전관리 실태도 지속 점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산업단지 내 폭염재난 예방을 위해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 산업단지 내 그늘막 12개소 설치와 근로자 보냉용품(쿨스카프) 1500점, 얼음생수 3000개를 배부하는 등 실질적 지원도 병

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현장은 기계·장비로 인한 고온 환경과 옥외 작업이 많은 만큼, 근로자 건강관리와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 산업단지 내 그늘막 12개소 설치와 근로자 보냉용품(쿨스카프) 1500점, 얼음생수 3000개를 배부하는 등 실질적 지원도 병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불법 환전·결제 거부 등 점검

영광군은 영광사랑상품권 유통이 활성화됨에 따라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이용자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시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영광사랑상품권 운영 시스템을 통한 이상 거래 탐지, 부정 유통 의심 제보 접수 등을 바탕으로 해당 자료를 분석한 후 현장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 사용,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대우 등이다.

특히 고액·반복 결제 사업장, 신규 등록 가맹점,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및 가맹점 취소 등 적극적으로 행정 조치를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영광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건전한 상품권 사용 문화 정착과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kjgp98@gwangnam.co.kr

‘전남 한 달 여행하기-곡성편’ 참가자 모집

곡성군은 전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전남 한 달 여행하기-곡성편’ 참가자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광주시와 전남도 외 지역 거주 여행자가 곡성을 중심으로 전남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는 숙박비, 식비, 체험비 등 실질적인 여행 경비를 하루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모집 인원은 총 10명이며,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청자 중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

개인 SNS를 통해 곡성의 관광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여행 기간은 이달부터 11월 사이 7~10일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여행 종료 후에는 ‘남도여행길잡이’ 누리집에 여행 후기를 작성하고, SNS에 관련 콘텐츠를 게시하는 등 필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참가 신청은 곡성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lady5112@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직원과 고객, 더불어 성장하는
주식회사 노아**

시설물유지관리, 건축공사, 금속창호공사, 도장공사, 방수공사

인중 및 특허
공공기관 실적

- 목포시 수영정물정비단 부분보수
- 전남체육고등학교 웨이트트레이닝실 벽체보수공사
- 목포교육지원청 유치원교실 바닥보수공사
- 신안교육지원청 장산초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심형배수장의 보수공사
-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스마트업 보육실 인테리어공사
- 여수지방해양안전청 거문도등대 태풍피해 복구공사
- 무안군청 삼향교 복용교 교량난간 정비공사

노아건설(주)

전남 목포시 연산백련로 1번길 51 ☎ 061-285-6100